



Hello, I am Sister Beatrice Ann Parenti. I grew up in Carnegie, Pennsylvania in a happy home with my parents, grandmother, two brothers and five sisters. I attended St. Luke's School for twelve years and the Sisters of Charity were my teachers. Sr. Mary Agnes Kerrey was one of my teachers and always shared her desire to be a missionary. How wonderful that her dream came true.

My desire to become a Sister of Charity began in first grade. My dream came true when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n September 8, 1953. I was privileged to teach primary grades for 43 years. I especially loved teaching first graders.

One of the highpoints of my community life was being chosen to go to Rome for the canonization of Mother Seton in 1975. I was so excited and thrilled to be part of this great moment of our Community's history!



Then in 1996, I was asked by the Community to go to Conn-Area Catholic School in Connellsville, Pennsylvania to establish a new program, which we named Conn-Area Catholic Extended Care. It was exciting as we purchased furniture, pool table, a basketball hoop, and carpeting and transformed a classroom into a new,

relaxed, home-away- from home dwelling. Then the day finally came when the children began to attend the After School Program. How they have enjoyed the program and I have especially enjoyed each one of them.

The program consists of helping the children with their homework, providing them with a healthy snack, and enjoying games with them.

In conclusion, I have been asked many times what I loved about being the Director of the Extended Care Program and I have always said," it is the children's spontaneous laughter and knowing they are happy!"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스 앤 패런티 (Sister Beatrice Ann Parenti) 수녀입니다. 저는 펜실베이니아주 카네기의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할머니, 칠남매가 함께 살았어요. 제가 성 루카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수녀회의 수녀님들이 저희 선생님이었어요. 그 때 메리 아그네스 케리 수녀님도 계셨는데 수녀님은 항상 수녀님이 가진 선교사의 꿈에 대해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수녀님의 꿈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1 학년 때부터 저는 사랑의 수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1953년 9월 8일 입회를 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43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의 수도생활의 최고의 순간은 1975년 로마에서 열린 마더 씨튼의 시성식에 참석한 일이에요. 우리 수도공동체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떨리고 감격적이었지요!



1996년에는 펜실베이니아주 코넬스 빌의 Conn-Area Catholic School로 파견을



받아 이 학교에서 새로운 방과후 프로그램(Conn-Area Catholic Extended Care)을 시작했습니다. 가구와 포켓볼 테이블, 농구대를 새로 구입했고 바닥에 카펫을 깔며 교실을 편안하고 새로운 집과 같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어요. 마침내 아이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요. 그리고 저도 하나하나가 모두 즐거웠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건강한 간식을 먹이며 함께 게임도 합니다.

저는 제가 이 프로그램의 책임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번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아이들의 꾸밈없는 웃음소리와 그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